

Nu-Metal 음악의 특징 분석 연구

- Korn의 Freak on a Leash 중심으로 -

유세권,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과
nosoul2@hanmail.net,
*entheos@chungwoon.ac.kr

An Analy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u-Metal

- Focused on 'Korn - Freak On a Leash' -

Se Kwon, Yo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1990년대 중반부터 큰 인기를 끌며 융합, 즉 하이브리드 장르로 불리던 Nu-Metal 장르는 단순히 잠깐의 인기를 누리다 식어 버리는 One-hit Wonder같은 장르가 아니다. Nu-Metal 장르로 들어와서 타 장르들의 콜라보레이션을 뛰어넘어 한 밴드 안에서 여러 장르를 융합하여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을 시켰고 심지어 요즘 아이돌음악에서나 볼수 있는 한국에서 다양한 보컬스타일을 선보이는 것을 이미 Nu-Metal 밴드들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아이돌 1세대들이 나오기 그 전부터 구현을 하고 있었다. Nu-Metal 장르의 아이콘이자 시초로 알려진 Korn의 Freak On a Leash의 연구 및 분석을 통해 Nu-Metal의 리듬, 튜닝셋팅, riff의 차이등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Rock&Metal 관련 연구들을 살펴봐도 Nu-Metal에 관련한 연구들은 찾기가 쉽지않아 참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Nu-Metal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 되고 현대 Rock음악의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서 론

현재 대중음악은 과거의 무수한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록 음악에서 컨트리 음악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기도 하고 힙합 음악에서 재즈 음악 연주 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르의 융합은 대중의 음악적 기호와 당시 문화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는 또 다시 다른 장르와 융합되어 색다른 장르의 탄생을 있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중음악의 변화 속에서 현재까지도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는 록 음악의 과거 발전 과정에서 1990년초에 태동하여 2000년대 까지 유행을 이끈 Nu-Metal 음악을 연구하고자 한다.

Nu-Metal이 유행을 하던 90년대는 흔히 불리우는 X세대(Generation X)[2]가 성인이 되는 시기였고 이들은 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존의 전통성을 나타내는 음악보다 더 거칠거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더 강한 것을 원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분노와 불안을 대

변하는 음악이 필요했고 그런 니즈를 반영하여 나타난 음악이 Nu-Metal 이었다. 기존의 장르의 틀 안에서 표현되는 정해진 rock음악장르에 극단적 튜닝방식, 화성적인 표현이나 악기별 테크닉적 연주보다 단순하지만 무거운 리프를 동반한 그루브중심의 표현으로 나타났고 힙합, 메탈과의 융합, 거기에 신스사운드와 EDM사운드와의 결합으로 이어져 현대엔 너무 당연한 장르의 하이브리드화를 일찍이 이끌었다.

현대 시대는 과거의 음악 장르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유행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음악을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 구분없이 적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 그런 탄생들로 인하여 대중음악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록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보다도 현대음악의 하이브리드 [3]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Nu-Metal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Korn의 대표적인곡중 하나인 'Freak

on a leash'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헤비메탈과의 차이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문에 제시된 악보중 반복적인 구간은 생략을 하도록 한다.

2.1 Korn - Freak On a Leash의 구조

곡의 형식과 진행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구조 (4/4)

구성	마디
Intro	1-16
Verse 1	17-32
Pre-Chorus 1	33-40
Chorus 1	41-49
Verse 2	50-57
Pre-Chorus 2	58-65
Chorus 2	66-74
Interlude	75-82
Bridge	83-94
Chorus 3	95-102
Outro	103-112

구조를 보면 알수 있듯이 기존의 메탈음악의 필수였던 Guitar Solo파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5]

2.2 Freak On a Leash의 분석 및 특징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우선 튜닝 셋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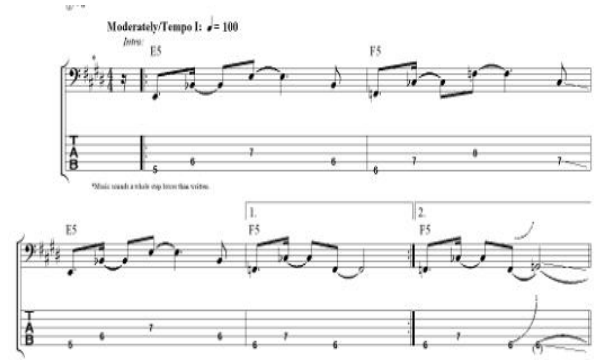
[표 2] 기타 튜닝

줄(현)	개방현(음 이름)
1	E → D
2	B → A
3	G → F
4	D → C
5	A → G
6	E → D
7	B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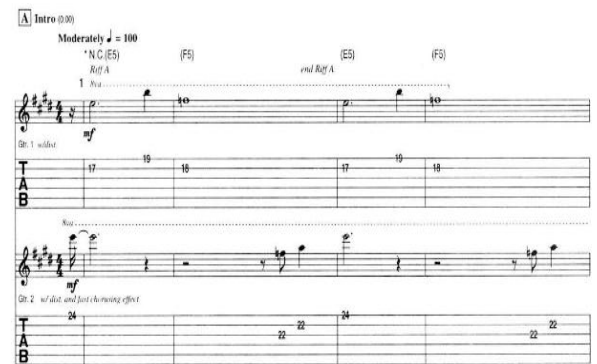
[표 3] 베이스 튜닝

줄(현)	개방현(음 이름)
1	G → F
2	D → C
3	A → G
4	E → D
5	B → A

극단적으로 음을 낮추어 헤비함과 어두움의 느낌을 더해준다. 악보상은 Ekey에 E Phrygian 스케일로 보이지만 다운튜닝으로 인하여 실제 들리는 키는 D로 봐야한다.



[그림 1] Freak On a Leash Intro (BASS)



[그림 2] Freak On a Leash Intro (Guitar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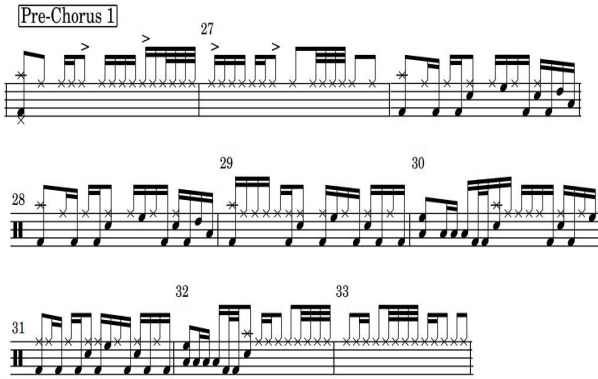


[그림 3] Freak On a Leash Intro (Drums)

Intro를 보면 기존의 헤비메탈과는 확연히 다른점을 발견할수 있다. 4마디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Verse까지 연주가 이어지는데 마치 힙합리듬처럼 헤비메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내어의 고스트 노트[3], 힙합스타일의 반복적인 2마디패턴의 베이스 riff, 베이스와 유니즌으로 8비트 스트레이트를 연주하던 헤비메탈의 리듬기타 연주법을 벗어나 Flanger, Reverb, Delay를 적절히 섞어 공간감을 만들후 Whammy Pedal[7]을 적용하여 옥타브를 상승시켜 몽환적인 소리를 완성한 기타사운드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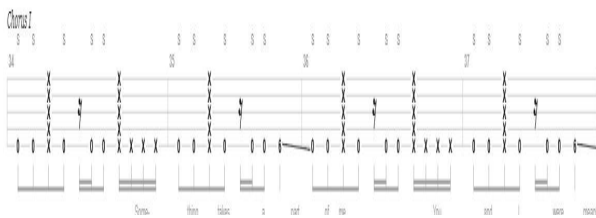


[그림 4] Freak On a Leash Pre-Chorus (Guitar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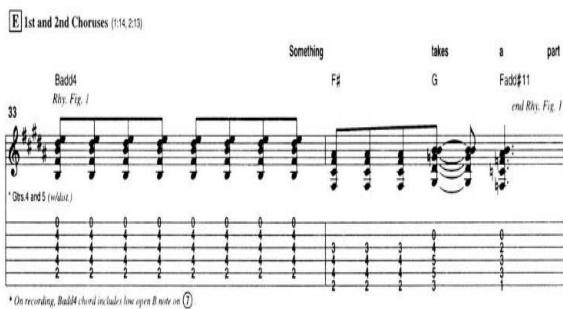


[그림 5] Freak On a Leash Pre-Chorus (Dru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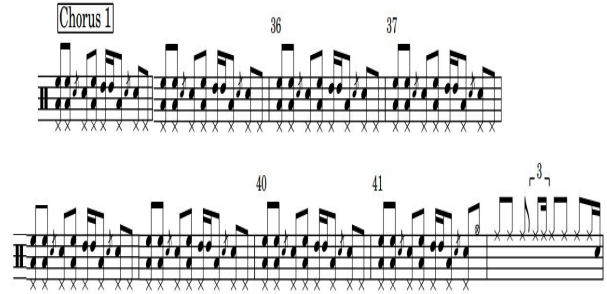
Pre-Chorus는 도입첫마디부터 리듬기타의 옥타브 연주에 더해 7번줄 근음을 같이 연주하여 Verse에서 Pre-Chorus로 넘어오면서 확실한 사운드 Build-up을 해주었고 드럼역시 도입2마디에 킁, 스네어를 제외함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더 해주었고 3마디부터 탐탐의 연주를 넣어 상승감을 표현하였다. 또 마지막 6박자에 Ride-Cymbal로만 연주하여 다가올 후렴과 대조적인 느낌을 주어 다이내믹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Freak On a Leash Chorus (b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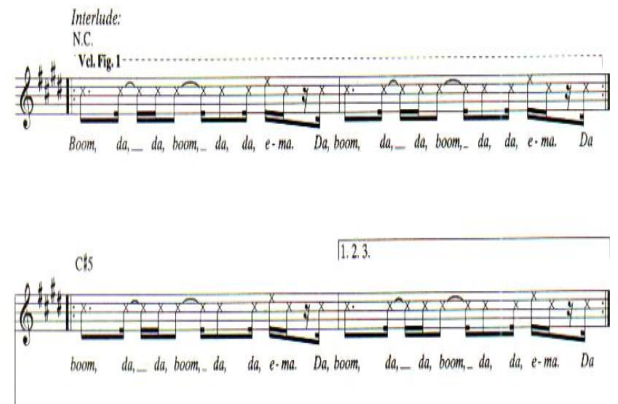


[그림 7] Freak On a Leash Chorus (Guitars)



[그림 8] Freak On a Leash Chorus (Drums)

Chorus를 보면 Bass 파트는 A튜닝의 극단적낮은음의 강조를 위해 뮤트를 제외한 모든 음을 Thump Slap[6]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5번줄 A튜닝 개방현으로 드럼리듬에 맞추어 강력한 어택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같은 구간 기타는 2마디 패턴으로 Badd4 - F (G F#add#11)연주를 2대의 기타가 유니즌으로 연주하여 헤비함을 표현하였고 드럼역시 단순한 킁,스네어 연주를 벗어나 로우탐을 함께 연주하여 그루브를 표현하였다.



[그림 9] Freak On a Leash Interlude & Bridge (Vocal Scat)

이곡의 Interlude부터 Bridge구간이 Nu-Metal의 특징으로 가장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구간이다.

Interlude에서 보컬이 주로 재즈음악에서나 볼수 있었던 의미없는 가사를 랩처럼 스캇[8]을 구사하고 기타1은 8비트 정박, 기타2는 16비트 엷박으로 연주하여 다이내믹과 그루브를 극대화 하였고 브릿지로 넘어가면서 크로매틱 스케일의 연주로 헤비함과 독특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드럼 역시 Interlude에는 이 노래에서 가장 강력한 구간인 브릿지 구간을 위해 킁을 제외하고 하이햇과 스네어로만 연주를 하여 표현하였고 브릿지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리듬에 맞추어 최대한 심플하고 강력하게 연주를 하여 Interlude와 Bridge의 차이를 극대화 하였다.

3. 결 론

Nu-Metal이라는 장르는 시간적 흐름을 보면 헤비메탈에 영향을 받아 생긴 서브장르로 볼렸지만 Nu-Metal의 가장 큰 핵심은 헤비메탈장르의 “서브”가 아닌 “융합”이라는 단어로 둘 수 있다. 타장르 뮤지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넘어선 밴드 스스로 장르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 장르를 융합하여 하나의 스타일로 재탄생을 시킨 것이다.

Nu-Metal이전의 헤비메탈의 대표적인 곡들인 Metallica의 Enter sandman, Judis Priest의 Breaking the Law, Painkiller등을 살펴보면 헤비메탈은 8비트 스트레이트 리듬, 베이스와 리듬기타의 유니즌, 필수요소인듯한 기타솔로의 강조등 정해진 틀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장르라고 말하자면 Nu-Metal은 힙합리듬등 그루브리듬의 적극적 도용을 기반으로 변칙적인 튜닝과 사운드 포지션 셋팅, 클린보컬과 언클린보컬 그리고 랩까지 다양한 보컬의 표현, 젊은 세대의 개인적인 감정적 고뇌와 사회적&정치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 표현, 글램메탈[8]에 대한 식상함등 여러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서 자리를 잡았다.

Nu-Metal은 추후 여러장르로 파생이 되어 음악들이 새로운 장르가 되는 과정의 흐름에 큰 기여를 한 의미가 있는 장르라고 말할 수 있다.

Korn의 ‘Freak On a Leash’ 한국 안에도 랩, 멜로디, 샤우팅, 스크리밍, 그로울링등 클린보컬과 언클린보컬이 혼재 되어 있는 보컬, Slap과 Finger의 혼합연주와 8비트 코드루트연주를 벗어나 독립된 riff를 연주하는 베이스, 스내어의 고스트노트 주법과 필인을 표현할때만 주로 사용하던 탐탐을 메인 리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16비트 킥에 벨로시티(Velocity)[3]차이를 적절히 두어 마치 힙합 비트같은 그루브를 표현한 드럼, 극단적인 A튜닝으로 헤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Flanger, Whammy Petal 등으로 몽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톤을 표현하는 동시에 기타 두대의 역할을 헤비메탈의 전형적인 연주주법인 베이스와 유니즌연주를 하는 리듬기타와 리드기타의 구분을 벗어나 리듬과 음역대조차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어 다이나믹과 유니크함을 더해주는 기타연주등으로 현대 음악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융합, 하이브리드화를 이미 Korn은 1990년대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Rock&Metal관련 연구들을 살펴봐도 Nu-Metal에 관련한 연구들은 찾기가 쉽지않아 참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본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현대 Rock음악의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

해 음악장르의 융합에 큰 역할을 한 Nu-Metal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David Lloyd “MERCURY MODELS: DISTORTION OF LANGUAGE AND IDENTITY IN NEW HEAVY METAL”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2011.
- [2] Trend , Winter 2018 How Are Generations Named? 2018년 1월 26일 Dr.Jean Twenge
- [3] 삼호뮤직 편집부 “과플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4] Korn 정규앨범 3집 [Follow the Leader]
- [5] Korn - “Follow the Leader: Authentic Guitar TAB” Alfred Music. 1998
- [6] Slap Bass Basics - The Thumb on February 7th, 2020<https://www.seymourduncan.com/>
- [7] < <https://digitech.com/dp/whammy/> >
정식명칭은 Digitech사의 Whammy를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처리를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피치를 최대 2 옥타브 까지 높이거나 낮춰주는 이펙터이다.
- [8] ‘Scat singing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lbert Hera. By Albert Hera 25/01/2025 in culture © 2025 SIING - All Rights Reserve | Alberto Quarello Pi 0330987004